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9주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7. 빛나고 높은 보좌와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행실을 다 아십니다. 멀리 있어도 우리의 생각을 꿰뚫으시고, 입을 벌리기도 전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도 다 아십니다. 파도치는 물결을 건잡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고요함을 창조해주십시오. 세상의 여러 가지 장애에 직면하여 이리 뒤틀리고 저리 뒤틀린 우리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바로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곧은 나무로 곡선을 이루는 한옥의 추녀처럼, 곧지만 다른 이들과 버성기지 않고 오히려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일이 제 아무리 어수선해도 내적인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사람됨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이는 새벽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영혼 깊은 곳에 진리의 등불을 밝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렘29:11 인도자

♠ 교 독 문 19 시편84편 다함께

♠ 영 광 송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함께

대표기도 I. 임보람 선생 II. 방문성 장로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367. 십자가를 내가 지고 다함께

성경봉독 I. 눅 13:6-9 인도자

..... II. 고전10:31-11:1 표명화 집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I. 버팀목을 세우며 김재흥 목사

..... II. 본이 된 사람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507.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4.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삶이 고마움임을 잊지 말고, 항상 사랑의 빛을 갠 심정으로 사십시오. 길 잃은 이들을 위해 이정표 하나를 세우는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안에 있으니 이제는 부질없는 염려를 버리고 살겠습니다. 어둠을 타하기보다는 스스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이익만을 따라 살던 조급함에서 벗어나 공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친히 우리의 보장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당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7월 동교회 모임	에베소서 강해(13)
아름답도다, 형제자매의 사랑!	기도 : 한선희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문영혜 집사 윤석철 장로	인도자 김용진 권사

7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인걸	박석희	송양진	이증자	이건화
	헌금위원	윤석철	이인웅	김준호	곽혜자	배상순	박혜경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온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당신은 예기치 못했던 것을 생활하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당신 혼자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현존의 빛나심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당신 인생의 의미가 있으니, 언제까지나 영원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받아 이번에는 당신도 사랑해서 죽기까지에 이른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기도 중에도, 투쟁하는 중에도 사랑을 잃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파괴적일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남을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들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신은 아십니까? 목상과 투쟁은 꼭 같은 근원에서, 사랑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당신이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사랑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착취당한 이들의 존엄성을 되찾아주고자 투쟁한다면, 그것 역시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 길로 나서기로 동의하겠습니까? 사랑을 위해 목숨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생활하겠습니까?

오 그리스도여, 주님은 쉬지 않고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게 모험의 길을 터주십니다. 주님은 앞장서서 성덕의 길로 나아가시는데, 거기서는 사랑 때문에 죽는 자가 행복하며 순교가 최후의 대답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아니’ 라는 말을 주님은 날마다 ‘예’ 라는 말로 변형시키십니다. 주님은 내 생의 부스러기들을 원하시지 않고 내 생활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주님이야말로 밤낮으로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더듬거림은 기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주님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는 온전히 일치하게 됩니다.

주님은 매일 아침 내 손가락에 탕자의 반지, 축제의 반지를 깨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망설였습니까? “(나는 왜) 주님의 영광을 아무 쓸모 없는 것들과 바꾸었던 말입니까? 맑은 물이 솟아오르는 샘을 버리고 금이 가서 물이 고이지 않는 빗물받이 웅덩이를 파려 했습니까?” (렘2장)

주님은 지치지 않고 나를 찾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는 내 일을 할 시간을 달라고 하며 또다시 망설였던가요? 일단 쟁기를 잡고서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뵈는 적이 없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복음서에서 조금이나마 이해한 것을 생활하라. 내 생활을 선포하라, 땅에 불을 지르라, (……)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돌이키지 않을 결심으로 자신을 바치라고 촉구하고 계심을.

나눔을 실천하기 위하여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소비욕에 저항하십시오. 많이 구입할수록 더욱 아쉬울 뿐입니다. 당신 자신이나 자녀들을 위해 비축하기 시작하는 것이 불의의 시초입니다.

당신의 집을 언제나 환영하는 곳이 되게, 또 평화와 용서의 집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이웃이 같은 층이나 같은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그들과 사귀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불의의 경계선이 한 대륙과 다른 대륙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집 대문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초대하여 음식을 나누십시오. 축제의 정신은 음식을 많이 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박한 마음가짐에 있는 것입니다.

■ 마/음/으/로/읽/는/글

마음을 비워라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마7:1)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를 보고 위선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판단이 아닙니까?”

“아니다.”

“어째서 아닙니까?”

“나는 보이는 대로 보았을 따름이다.”

“누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너희가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보이는 대로 보는 것과 보는 대로 보이는 것의 차이이다.”

“.....?”

“좀더 자세히 말하면 사심(私心) 없이 보는 것과 사심을 품고 보는 것의 차이이다. 나는 보이는 대로 보거니와, 너희는 보고자 하는 대로 본다. 위선자를 위선자로 보는 것은 판단이 아니다.”

“사심 없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비우면 된다.”(이아무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성가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오진훈 노순옥 이한림 김명희 박창운 허정윤 고사일 최영선 김필순
 정복순 이인웅 이유선 방극숙 안정숙 박정숙 강인식 김정숙 홍순가
 안홍숙 노용래 차혜심 박경원 염혜영 이은옥

월정헌금:

장재영 김재영 서재홍 박현우 윤성종 김운정 유증희 이재문 오현정
 조항범 김명순 김남종 오복순 김창원 정지은 이봉배 권미정 박상규
 임수연 임원민 노미향 배부례 이지훈

감사헌금:

김용진 박효선 염혜영 권채영

생일감사헌금: 강인식 박찬정 최동운

구도헌금: 김기석 무명1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영남	차혜심	연 합 속 회	삼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곽권희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베다니	임창선	박홍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장혜숙		
빌립보	구성실	박현우		
가버나움	구명자	안홍숙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예배 후 제2·4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2. **동호회** : 오늘 오후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시간입니다. 성도들과 사귀면서 소중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동참하십시오.
3. **성경학교** :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21일(목)부터 23일(토)까지 아산에 있는 감발교회에서 열립니다.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4. **수련회** : 중고등부 수련회가 26일(화)부터 28일(목)까지 철원에 있는 은혜교회에서 열립니다.
5. **원로모임** : 아름다운 원로 7월 모임이 20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중고등부실에서 열립니다.
6. **신앙실천** : 제헌절을 지나면서 법과 질서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를 무질서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데서 영적 힘도 생깁니다.

* 식당 봉사 : 시온숙 * 커피 대접 : 조병주 권사

* 헌화 : 장혜숙 권사 (그냥)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